



이달의 으뜸중기제품 **에이펙스인텍** 에너지 절감 효과 뛰어난 슬림 LED 조명

수명 1만시간 더 늘린 조명 ... “얇고 가볍다” 돌풍

김권진 에이펙스인텍 대표는 2013년 LED(발광다이오드) TV를 보다가 별책 읽어냈다. 그리고 TV 패널을 유심히 살폈다. LED 조명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그는 조명의 두께와 무게 때문에 늘 고민이었다. 그런데 LED TV 패널은 얇고 가벼웠다. 각 모서리와 옆면에서 빛을 쏘기 때문에 가능했다. 반면 LED 조명은 뒤에서 빛을 비추는 방식이었다. 그는 생각했다. 'LED TV 패널과 같은 방식으로 조명을 만들자.'

그리고 2년 뒤인 지난해 9월 에이펙스인텍은 '슬림 LED 조명'을 선보였다. 두께는 일반 LED 조명보다 17%가량 얇은 1.2cm다. 무게도 7%가량 줄인 3.6kg이다. 김 대표는 "LED TV 패널처럼 얇고 가볍기 때문에 설치도 쉽게 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 사이에서 입소문 이 나며 매달 20~30%씩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수명 1만시간 더 긴 LED 조명 김 대표는 1997년 사업을 시작했다. 한 회사의 구매 담당 부서에서 일하던 중 외환위기가 닥쳤기 때문이다. 그는 회사를 나와 자동차, 전자부품 등을 제조했다. 2008년엔 LED 조명 교체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해 업종을 전환했다. 김 대표는 "LED 조명은 에너지 절감 효과가 뛰어나고 수명도 길어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업체 제품은 전국 300여곳에 설치돼 있다. 2014년엔 서울 지하철 5~6호선 역사에 들어가는 조명 전부를 납품하기도 했다. 지난해 판매량은 170만개에 달했다. 매출은 120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김 대표는 한계를 느꼈다. 현재 전체 매출의 60%는 실외 조명 부문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많은 실외조명이 LED로 교체돼 수요가 크게 늘어나기 힘든 실정이다. 김 대표는 "그동안 실외조명에 치중했지만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실내조명 시장을 적극 공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슬림 LED 조명은 일반 소비자들을 위해 개발한 실내조명이다. 두께와 무게를 줄였을 뿐 아니라 조명을 사용할 때 누구나 느끼는 불편함을 해결하는 데 집중했다. 김 대표는 "조명을 오래 쓰다 보면 제품 안에 먼지가 들어가 색이 누렇게 변하거나 심지어 벌레가 들어가기도 한다"며 "이를 막기 위



김권진 에이펙스인텍 대표가 경북 칠곡 본사에서 슬림 LED(발광다이오드) 조명의 장점을 설명하고 있다. 김희경 기자

조명 두께 1.2cm 불과 TV패널 보고 제품 아이디어 판매 매달 20~30%씩 급증 호주·일본 등 6개국 수출

해 옆면을 전부 프레임으로 감쌌다"고 설명했다. 수명도 기존 조명들에 비해 1만시간가량 더 늘렸다. 가격은 14만3000원이다.

◆호주, 일본 등 6개국 수출도 유통망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엔 중소기업 상품을 전용으로 판매하는 서울

목동의 '행복한백화점'에 입점했다. 최근엔 롯데마트 등과 입점을 논의하고 있다. 그는 "최근 백열등이 사라지고 있고 LED 조명 가격이 많이 떨어져 LED 조명에 대한 선호가 높다"고 말했다.

해의 판매도 강화한다. 현재 호주 일본 인도네시아 등 6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앞으로 중국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그는 "아직은 수출액이 전체 매출의 15% 수준에 불과하지만 절반 이상으로 끌어올려 글로벌 회사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칠곡=김희경기자 hkkim@hankyung.com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일(art@hankyung.com)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 △에스엠부레-초미립자분무기(062)959-1511 △에너지코리아-원적외선난방기 1600-9339 △에이펙스인텍-슬림LED조명(054)977-7667 △츄리빙-웃츄리밴드(070)4685-2004

화장품·일반의약품 FDA 동시 인증 코스맥스, 美 진출 본격화

전체 품목으로 국내 유일 "을 미국서 4000만불 매출"

화장품 제조업체개발생산(ODM) 업체인 코스맥스(회장 이경수·사진)가 미국 식품의약품(FDA)으로부터 화장품과 일반의약품(OTC) 인증을 동시에 받았다. 코스맥스는 25일 "화장품 전체 품목에 대해 화장품, 일반의약품 인증을 함께 받는 데 성공했다"며 "미국 시장에 본격 진출하기 위한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본지 1월 19일자 A1, 13면 참조 코스맥스는 세계 1위 로레알그룹의 랑콤, 이브생로랑, 슈에무라 등 국내외 300여개 브랜드에 납품하고 있다. 화장품 전체 품목에 대해 인증받은 것은 코스맥스가 유일하다. 다른 국내 화장품업체들은 개별 품목에 대해서만 미국 FDA 승인을 받았다. OTC 인증도 함

계 획득했다. OTC는 전문의의 처방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을 말한다.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선 자외선차단제(선스크린) 제품은 화장품이 아닌 OTC로 분류하고 있다. OTC 제품을 미국에 수출할 땐 미 의약품 제조품질 관리기준(GMP) 규정을 따라야 한다. 이경수 코스맥스 회장은 "까다로운 OTC 인증까지 받은 안전한 제품을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코스맥스는 올해부터 미국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2013년 인수한 로레알 미국 공장을 개조해 본격 가동한다. 올해엔 미국 현지에서 4000만달러의 매출을 달성할 전망이다. 이 회장은 "그동안 아시아 국가 중심으로 수출해왔다"며 "이번 인증 획득을 통해 유럽 시장인 미국은 물론 유럽 등에 대한 수출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희경기자 hkkim@hankyung.com

LG하우시스, 중서 3년 연속 친환경 자재 선정

LG하우시스는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3차 건설업계 연간 브랜드 대상에서 3년 연속 '중국 친환경 건축자재 10대 브랜드'에 선정됐다고 25일 발표했다.

중국 전국건설협회가 주관하는 브랜드 대상은 건축자재 기업의 품질관리와 만족도 평가, 건설사 및 유관기관 추천 등을 종합해 수여하는 중국 건설업계 최고 권위의 상이다.

LG하우시스는 2014년 외국 기업으로는 최초로 10대 브랜드에 뽑힌 데 이어 지난해와 올해까지 3년 연속 선정됐다. 이 회사는 중

국내 건축자재 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TVOC(총휘발성유기화합물) 분석 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항균·항곰팡이 성능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친환경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있다. LG하우시스는 중국 내 외국계 건축자재 기업 중 랭차 1위, 바닥재 1위에 올라 있다.

김상호 LG하우시스 중국법인장은 "앞으로도 중국 고객의 수요를 적극 반영한 제품을 앞세워 프리미엄 건축자재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김희경기자 hkkim@hankyung.com

여민기술연구소, 몽골서 '클린 석탄' 생산 협약

오염물질 줄인 천연소재 개발 현지서 日 200t 규모 생산

식물과 음식물쓰레기 등을 활용해 친환경 연료를 만드는 여민기술연구소(대표 강영원·사진)는 주한 몽골대사관에서 몽골의 석탄 가공업체인 몬치모와 '클린 석탄 생산을 위한 기술협력 계약'을 맺었다고 25일 밝혔다.

여민기술연구소가 클린 석탄 생산기술 및 설비를 제공하고, 몬치모가 몽골 현지 생산을 맡는다. 여민기술연구소는 석탄이 탈 때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천연소재를 개발했다. 강영원 대표는 "자체 개발한 천연소재를 석탄과 함께 넣으면



이현동기자 gray@hankyung.com

석탄이 완전 연소하게 돼 불안정 연소의 부산물인 황과 질소 등 유해물질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몬치모는 우선 몽골 바가노르탄 광에 있는 가공공장에서 하루에 200t 규모의 클린 석탄을 생산하기로 했다. 수도인 울란바토르에 가정을 공급하기 위한 물량이 다. 이후 연간 가정을 100만t, 발전용 500만t 규모로 생산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바산자브 간볼드 주한 몽골대사는 "몽골은 석탄을 주발전 원료로 사용해 대거오

염이 심각하다"며 "클린 석탄 생산은 몽골 국민의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강 대표는 "몽골의 연간 석탄 생산량은 4000만t 정도"라며 "몽골 전 지역 탄광에 클린 석탄 기술 및 설비를 수출하는 데 초점을 맞춰 출 계획을"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5년간 생산설비와 기술료를 포함해 2억2500만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여민기술연구소는 그동안 청정 에너지 개발에 주력해 왔다. 2014년에는 음식물쓰레기, 커피찌꺼기 등을 건조해 만든 고체연료인 '녹탄'을 개발했다.

이현동기자 gray@hankyung.com

알톤스포츠, 고성능 산악자전거 잇단 출시

자전거 전문기업인 알톤스포츠(대표 김신성)는 '알톤 그라니트' (사진) '알톤 폴리코' '알톤 투어로드' 등 신제품 3종을 25일 출시했다.

알톤 그라니트 시리즈는 산악자전거 제품군이다. 대표 모델은 '알톤 그라니트 30D'다. 시마노 데오레 30단 변속기와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를 달았다. 가격은 80만 원대지만, 주로 중고가 제품에 적용되던 27.5인치 휠을 달았다. 그린, 실버, 레드 등 세 가지 색상으로 출시됐다.

알톤 폴리코는 알루미늄 하이브리드 제품이다. 기존 인기 모델인 '알톤 R6021'의 업그레이드 모델이다. 몸체(프레임)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수작업 공법인 '스무드 웰딩'을 적용해 용접 흔적을 없앴



다. 시마노 21단 변속기를 채택했고 430mm, 480mm, 510mm 등 세 가지 사이즈로 출시돼 체형에 따라 구매하면 된다.

알톤 투어로드의 흠이 튀는 것을 막아주는 머드가드와 짐받이인 리어레이크 장착돼 자전거 여행을 할 때 적합하다.

알톤스포츠 측은 "작년 정보기술(IT) 부품소재 회사인 이녹스에 인수된 이후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동기자 gray@hankyung.com

정자, 원두막, 파라솔의 장점만을 모아 만든 **태풍과 폭설에 강한**
나눔과 소통, 창조와 혁신, 힐링의 공간
원두막파라솔 토크방!!

국제공인시험기관 **무고정** 내풍압 **초속 40m/s** 시험완료!!
시속 144km/h

기술혁신형(INNO-BIZ, 벤처기업)중소기업인 (충경구에서 만든 원두막파라솔은 100% 국내 생산 제품으로 기술특허&디자인특허를 받은 제품이며, 세계 최초 일체형 DIY제품으로 다양한 공간에서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두막파라솔 토크방 S 원두막파라솔 시 305만원 350만원	원두막파라솔 토크방 SP1 원두막파라솔 시 325만원 370만원	원두막파라솔 토크방 SP2 원두막파라솔 시 345만원 390만원
원두막파라솔 토크방 L 원두막파라솔 시 395만원 440만원	원두막파라솔 토크방 LP1 원두막파라솔 시 415만원 460만원	원두막파라솔 토크방 LP2 원두막파라솔 시 435만원 480만원

※ DIY 소비자 직접 조립 가능 ※ 배송비 별도·전국 10~20만원

전국 대리점 모집 중!! (초기비용: 1,500~2,000만원) 성인 2인 기준 1시간 이내 설치가능 전국 어디든 설치가능

KG(주)경구 본사 031.762.4488 www.토크방.com 1544-5538

순천광양 061.746.1050
안산 031.484.9600
강릉영동 033.655.8900
남양주 031.575.7200
전주중앙 063.253.7527
경기광주 031.763.3369
제주탐라 064.796.8877
제주한라 064.799.2255
무안목포 061.279.0114
수원 070.8767.1545